

2013. 9. 27.

# 일본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JAPAN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



**kocca** KOSER  
CREATIVE CONTENT  
AGENCY

# 주간 심층이슈

## 『일본정부의 지적재산추진계획과 콘텐츠』

### ◎ 작성취지

- 일본정부는 앞으로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2002년에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에는 콘텐츠 등을 포함해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함.
- 일본 총리가 지적재산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정책과 추진계획을 지휘하고 있음.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3을 통해 일본정부의 지적재산의 핵심인 콘텐츠 정책의 현주소와 방향성을 파악하고 국내 관련 정책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함.

※출처 :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3

### ◎ 작성순서

- I.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3 책정에 관하여
- II.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및 ‘지적재산 정책비전’에서 정한 네 가지 핵심사항에 입각한 구체적 행동계획(단기·중기)
  - II-1 경쟁력 강화·국제표준화 관련 시책
  - II-2 콘텐츠강화관련 시책

## I.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3 책정에 관하여

- 2003년 지적재산기본법(2002년 법률 제122호)의 시행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고, 그 동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위상강화,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까지 포함한 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플랫폼화/오픈화,

콘텐츠 미디어의 다양화 등, 지적재산정책의 전제가 되는 경제사회 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은 오랜 전통과 풍부한 문화, 그리고 폭 넓은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략적 활용에는 다른 나라에 뒤쳐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음
- 지금이야말로 일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본은 지적 재산을 강점으로 삼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해나가야 함.
- 이상과 같은 인식 하에서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3년 6월 7일, 이후 약 10년을 내다본 지적재산정책 전개에 축이 되는 4개의 핵심과 이에 맞는 장기정책과제 등을 담은 '지적재산정책 비전'을 정하고,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정책 비전'의 4개 핵심을 중심으로 장기기본방침에 부응하는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함.
- 여기서 결정한 4개의 핵심은 이하와 같음.

-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
- 2)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강화 지원
- 3)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 4)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의 강화

- 일본은 향후 4개 중심 항목을 축으로 지적재산정책을 전개해 갈 것이며 첫해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3'을 책정함
-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는 '지적재산정책비전'에 기재한 장기(10년) 정책과제에 맞추어 단기(1~2년)/중기(3~4년)의 구체적 시책을 정하고, 공정표를 작성하며 각 시책의 내용/실시 부처/달성 시기를 명확히 함. 또한, 매년 실시 상황을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조사해 감으로써 각 시책의 착실한 실행을 도모해 갈 것임
- 이하에서는 4개의 중심 항목 중 1)과 2)를 경쟁력강화/국제표준화 관련으로, 또한 3)과 4)를 콘텐츠 강화 관련으로 각각 전제가 되는 정세인식을 공통으로 기재한 다음, 4개의 중심 항목마다 구체적인 시책을 기술하는 순서로 구성함.

## II.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및 지적재산정책비전에서 정한 4개의 핵심 항목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단기·중기)

### ■ II-1 경쟁력 강화/국제표준화 관련 시책

#### ○ [정세 인식]

-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다이내믹하게 변화하고 있음. 경제력에 관한 세계의 세력판도가 크게 변하면서, 중국, 인도,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이 성장 센터로써 약진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경제협력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 정부간 경제적 협력관계의 강화 등을 통해서 국경이라는 경제적 장벽이 저감(低減)된 것과 고속인터넷망이 세계적으로 구축됨으로서, 세계가 심리스(seamless)로 연결되어 정보, 사람, 물자, 자금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글로벌 경제 시대가 막을 열고 있음.
- 글로벌 경제의 도래에 따라, 이노베이션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세계의 '지(知)'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고, 누구나 그 '지(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 이것으로 이전에는 일부 지역/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유용한 '지(知)'가 지금은 세계에 산재하게 됨.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이노베이션의 씨앗이 세계에 무수히 존재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임. 이런 상황은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유용한 '지(知)'를 전략적으로 취하거나, 또는 조합함으로써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만들어내려는 '오픈'되고 '글로벌'한 이노베이션을 전제로 한 산업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지금까지 일본은 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를 직접 담당하는 수직통합형 모델을 장점으로 해, 높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 왔지만, 이런 이노베이션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세계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음. 앞으로 일본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이노베이션의 씨앗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을 시야에 둔 '오픈'된 '글로벌'한 이노베이션 전략을



취해가는 것이 필요 불가결함.

- 이처럼 더욱 '오픈'되고 '글로벌'한 이노베이션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전략이 맡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왜냐하면, 지적재산전략의 진가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 '지(知)'의 창조를 촉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 '지(知)'의 이전과 공유를 컨트롤하는 것에 있기 때문임. 이것은 예를 들면, 특허권이 기술에 관한 소유권을 규정하고 특허기술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라이선스 등을 통해서 오픈할 것인가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음. 글로벌 경제 및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문맥 하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지적재산전략, 즉, 특허, 의장, 상표, 노하우, 표준화 등의 모든 지적재산 툴을 활용해서 외부의 '지(知)'와 경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시점에서 오픈해야 할 영역과 교차해야 할 영역을 명확히 디자인하고, 수익의 최대화를 도모하는 지적재산전략을 경영전략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실천해 가는 것 그 자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됨. 하지만 아쉽게도, 일본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뛰어난 기술/서비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적인 지적재산전략을 포함한 경영전략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세계에 뒤처지고 있어, 이것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한 사업활동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 일본경제가 다시 한 번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본기업, 특히 일본의 산업구조를 뿌리부터 지탱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경영 전략에 맞는 선진적인 지적재산전략을 한시라도 빨리 확립/실행해 가는 것이 필요 불가결함.
-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로써는 산업경쟁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해서 일본 기업이 선진적인 지적재산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큰 틀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해 갈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기업이 불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적재산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한 관련 시책을 마련함.

- 이와 더불어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중소/벤처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강화 지원'이라는 관점을 축으로 한 관련 시책을 수립함. 두가지 관점을 축으로 한 관련 시책을 국민 일체가 되어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지적재산전략으로 강화해 갈 것을 목표로 함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적재산시스템의 구축)

- 글로벌 경제의 도래는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과실을 얻을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이 장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계속적으로 창출해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 이를 일본경제에 환원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성장/발전을 자체의 성장동력으로 흡수해가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게 됨.
- 다른 한편으로 신흥국의 성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흥국 시장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지적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각국의 지적재산제도의 성숙도는 나라마다 크게 다르고, 특히 신흥국의 지적재산제도에 관해서는 정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많음. 이런 상황은 일본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막고, 경쟁력을 큰 폭으로 깎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일본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을 염두에 둔 지적재산정책을 추진해 갈 때에는 이하와 같은 시점에서 시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첫째,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한층 유리하게 사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앞장서서 국제적인 지적 시스템의 조화를 리드해, 일본기업이 해외에서도 일본과 같은 감각으로 지적재산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하고 심리스(seamless)한 글로벌 지적재산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시점임. 구체적으로는 일본 특허청의 심사관을 아시아 신흥국 등의 지적재산청에 상당 규모 파견해 파견된 나라의 지적재산 시스템의 정비를 지원하는 것과 일본에서 신속하고 질 높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외에 재빨리 발신하는 것 등을 통해서 일본의 지적 재산 시스템을 글로벌하게 전개/보급시키고, 일본기업이 해외에서도 지적재산권을 원활/적확히 취득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추진함. 또한, 해외의 지적재산활동 지원 체제와 조사의 강화, 통상관련협정의 활용을 통한 타국 정부에 대한 요구 활동 강화 등을 실시해,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지적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추진해 감.

- 둘째, 일본의 지적재산시스템 자체를 해외 기업도 모두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국제적 구심력을 갖춘 글로벌 전개에도 버틸 수 있는 매력적인 시스템으로 한다는 시점임. 한국의 Korea-IP Wave전략(지적재산행정의 한류 확대)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국의 지적재산 시스템은 국제적인 서비스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 이런 지적재산시스템의 국가간 경쟁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지적재산시스템을 세계에서 창조력이 풍부한 인재와 기업, 더 나아가서는 이노베이션 투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적인 것으로 할 수 없다면, 지적재산시스템을 글로벌로 전개하기는커녕, 국내 산업의 공동화(空洞化)조차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일본의 지적재산시스템을 신흥국을 비롯한 각국이 모델로 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것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직무발명제도, 특허청의 심사 기반의 정비/강화, 영업 비밀 보호 강화, 지적재산 분쟁 처리 기능 강화, 국제표준화/인증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 강화, 산학관계기능의 강화 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이노베이션 활동을 하기 쉬운 환경 정비를 추진함.
- 셋째,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지적재산 인재를 육성/확보한다는 시점임. 일본의 지적재산 시스템을 해외에 전개/보급시켜 글로벌 지적재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는 일본기업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지적재산 시스템에 정통하고 국제적인 협상에도 능숙한 인재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를 염두에 둔 사업 전략적인 지적재산 매니지먼트를 구축/실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불가결함.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 활용도 포함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지적재산 인재를 육성/확보하

기 위한 시책을 착실하게 실행해 감.

### ○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강화 지원)

- 중소기업은 혁신적인 기술 창조를 이끌어가는 주체이자 또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써 일본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존재이며 그 사업 활동의 활성화는 일본 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함.
- 글로벌 경제의 도래로 중소기업도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대부분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놓여있음. 일본에는 모노츠구리(제품 생산)의 현장에서 축적된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 다수 존재함. 그러나 예를 들어, 그 기술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해도 그것만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일본의 중소기업이 한층 비약/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내다보고 스스로의 사업에 적합한 지적재산전략을 구축하고, 내외의 뛰어난 지적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생김.
-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등이 다양한 시책을 구상해 왔지만, 그 효과가 전체에 침투하지는 못하고 있음. 또한, 아직 많은 일본의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재 부족 등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과 외부에 존재하는 이용 가능한 지적재산을 충분히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시라도 빨리 일본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에 걸맞은 적절한 지적재산 전략을 실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상황을 고려, 정부가 하나가 되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활동을 개별적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체제를 발본적으로 강화해 갈 것임.

## ■ 제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

### ○ 1. 기업의 해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

- (1) 해외 지적재산권 취득 지원(일본기업이 아시아 신흥국 등에서 일본과 같은 감각으로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시책사례]

### (특허청 심사관의 아시아 신흥국 지적재산청 파견)

-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기 심사관 파견(국제심사관 협의)의 대상국을 확대하고, 아시아 신흥국과의 사이에 순차적으로 국제심사관 협의를 개시함.(단기) (경제산업성)
- 아시아 신흥국에 대해 일본특허청의 심사관 장기 파견 및 지적재산 시스템 정비로 아시아 신흥국 지적재산청의 심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함.(단기/중기) (경제산업성)
- 일본기업의 니즈와 상대국과의 협의 상황 등을 고려, 어떤 나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심사관을 파견할 것인가는 점과 심사관 장기 파견의 구체적인 스킴에 관해 검토하고 결론을 냄.(경제산업성)(단기/중기)

### (지적재산시스템의 글로벌 전개를 위한 기반 정비)

- 일본에서 최종적인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심사의 신속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심사의 질 유지/향상을 통해서 질 높은 심사 결과를 해외에 빨리 발신함.(단기) (경제산업성)
- 국제특허출원에 관해 현재 일본이 국제조사를 관할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8개국이지만, 일본특허청 심사 결과의 글로벌 발신력(発信力)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국제 심사를 관할하는 국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들 나라와 국내에서 영어를 이용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영어로 심사 결과를 발신하는 것을 강화함.(단기/중기) (경제산업성)
- 유저들의 니즈를 고려해, 아시아 신흥국 등에 대해 특허 심사 하이웨이의 확대를 도모함.(단기) (경제산업성)
- 해외 각국의 일본의 심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흥국의 지적재산제도 정비에 이바지하는 타국 실무자의 편리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특허청의 심사 기준의 포인트를 명확화하고 영어화해 세계로 발신함.(단기/중기) (경제산업성)
- 일본의 심사결과통지서의 기재양식(거절이유통지서 등의 양식)을 제공하고, 아시아 신흥국에서 공통의 심사 결과 통지서의 기재양식을 작성

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함.(단기/중기) (경제산업성)

- 심사관 파견지인 아시아 신흥국에서 일본과 같은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행 기술조사를 위한 검색 환경정비에 대해 타국 및 국제기관의 검색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서 검토함.(단기) (경제산업성)
- 심사관 파견지인 아시아 신흥국에서 일본과 같은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출원의 타국심사결과정보를 일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심사용 정보시스템을 정비함.(단기/중기) (경제산업성)
- 아시아 신흥국 등의 지적재산 기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아시아 신흥국 등에 영향력을 가진 WIPO와도 밀접하게 연계해서, WIPO 재팬 펀드 사업 등을 통한 인재육성 지원, 전문가 파견과 각국 지적재산청의 정보화 지원을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함.(단기)(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일본 특허청의 심사 체제 강화)

-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심사관 파견, 현지의 지적재산제도 정비 지원, 일본에서의 최종적인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심사의 신속화, 증가하는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대응, 외국 문헌 조사의 확충 등에서 심사질의 유지/향상을 위해, 임기 심사관제의 유지/확보를 포함한 심사체제의 강화를 도모함.(단기) (경제산업성)

○ (2) 해외에서의 지적재산활동 지원(아시아 신흥국 등에서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법집행 등의 지원 체제 강화)

[시책사례]

(해외 현지 서포터 체제 강화)

- 중소기업/벤처를 비롯한 기업의 해외사업 전개 종합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특허청,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 JETRO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의 지적재산 권리화에서 활용까지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환경을 강화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 시장으로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에 관해서는 각국의 지적재산제도 운영 개선 촉진, 모방품 피해의 실태 파악에 충

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현지에서의 지적재산 법집행 지원과 일본 브랜드 추진 관련 지원을 한층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 변리사나 기업 OB 등의 활용도 염두에 둔 대사관과 JETRO 등의 현지지원 체제와 활동 강화를 도모함.(단기/중기) (경제산업성, 외무성)

- 해외 모방품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방품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이 실시하는 현지침해 조사의 지원 사업의 활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지원 확충을 도모함.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아시아 신흥국의 저작권 제도의 환경 정비)**

- 저작권 제도의 환경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아시아 신흥국의 니즈와 제도정비 상황을 고려해,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정비, 인재 육성, 보급 계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추진함.(단기/중기) (문부과학성)

**(3) 지적 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통상 관련 협정의 활용**

**[시책사례]**

**(경제협력협정, 투자협정 등의 활동 강화)**

- 자유무역협정(FTA)/경제협력협정(EPA)과 투자협정 등 양국간/다국간 협정을 통해서 글로벌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지적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문제 해결/개선을 도모함. 구체적으로는 일본 산업계 등의 요청 내용을 고려하면서, 협상 상대국의 지적재산제도 정비와 실효적인 법 집행 확보 등을 촉진하고, 또한, TRIPS협정 등의 규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지적재산 보호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임. 특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관련 산업계를 비롯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추구함.(단기/중기)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로열티의 과제 취급)**

- 기술라이선스 계약과 관련 로열티 요금 비율, 로열티 송금 제한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산업계의 대응과 관심을 반영하면서, 향후 통상 교섭, 정부간 협상의제로 삼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단기/중기) (외무성, 경제산업성)

## ○ 2. 국제적 지적재산의 제도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 정비

### (1) 직무발명 제도

#### [시책 사례]

#### (직무발명 제도 형태)

- 직무발명 제도와 관련 일본 국내외의 운영상황에 관한 분석 결과와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도 참작하면서, 이하와 같은 관점에서, 예를 들면 법인귀속 및 노사 등의 계약에 위임하는 등, 산업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론을 냄.(단기)(경제산업성)
  - 발명자에 대한 지불의 예견성(豫見性)을 높이는 관점
  - 발명자에 대한 지불이 발명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생각해야하는가, 추가적인 보수로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관점
  - 종업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노동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발명의 대가에 관해서는 직무발명규정으로써 특허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의 시각에서도 직무발명제도에 관해 정리하는 관점
  - 글로벌한 제도 조화(調和)의 관점
  - 발명자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제도/환경의 제공이라는 관점

#### (대학 등 학생 발명의 적절한 취급 촉진)

- 직무발명 이외의 자유발명(고용 관계가 없는 학생의 발명 등)에 관해 대학 등에서 발명에 대한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그 정보를 주지함으로써 적절한 취급을 촉진시킴.(단기 (경제산업성))

### (2) 심사기반 정비

#### [시책 사례]

#### (심사체제의 정비, 강화)

- 일본에서 최종적인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신속한 심사, 심사의 질 유지/향상, 아시아 신흥국에의 심사관 파견, 현지의 지적재산제도



정비 지원을 위해 임기제 심사관의 유지/확보를 포함한 심사 체제의 강화를 도모함.(단기) (경제산업성)

- 심사관 파견지인 아시아 신흥국에서 일본과 같은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행 기술조사를 위한 검색 환경정비에 대해 타국 및 국제기관의 검색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서 검토함.(단기) (경제산업성)(전계)
- 중국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비일본어 특허문헌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외국어 특허 문헌을 일본어로 검색 가능한 환경의 정비(번역, 분류 등)을 촉진함. 또한, 그 성과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새로운 인터넷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더 유저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폭 넓게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 심사관 파견지인 아시아 신흥국에서 일본과 같은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된 출원의 타국 심사 결과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심사용 정보 시스템을 정비함.(단기/중기) (경제산업성) [전계]

(사업전략에 대응하는 시기적절한 권리 보호)

- 기업이 이노베이션을 원활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 전개 타이밍에 맞춰 사업에 관한 복수 분야의 특허 출원, 의장 출원, 상표 출원을 일괄적으로 심사/권리화하는 사업전략에 대응한 일괄 심사를 개시함.(단기) (경제산업성)

(글로벌 의장제도, 글로벌 상표제도의 구축)

- 화상 디자인의 의장 보호 대상 확충을 위해서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를 함.(단기)(경제산업성)
- 의장에 관한 심사기준을 개정된 부분도 포함해 영어로 만들어 세계에 발신함.(단기)(경제산업성)
- '소리'와 '움직임' 등의 상표를 새롭게 보호 대상으로 하기 위해 제도의 확충을 도모함.(단기)(경제산업성)
- 향토 음식 등, 지역 브랜드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도모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등이 지역단체 상표의 등록주체가 되도록 제도 확충을 도모함.(단기)(경제산업성)

- 상표 관련 심사기준의 개정 부분을 영어로 만들어 세계에 발신함.(단기) (경제산업성)
-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역무 품질 등을 증명하는 표식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 제도에 관해 검토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 등록 후에 식별력을 상실한 등록 상표의 취소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해외각국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소리'와 '움직임' 등 새로운 상표 운용 상황도 지켜본 뒤, 그 방향성을 결정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 (3) 영업 비밀의 보호

#### [시책 사례]

##### (영업비밀에 관한 해외 조사/연구)

- 영업비밀 침해의 입증 부담 경감(특히, 국외에서의 사용/개시(開示)의 증명 등),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부정하게 제조된 상품의 글로벌 유통 방지 등과 관련 일본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활동 촉진을 위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과제, 미국에서의 원초적 봉쇄 등의 해외 제도와 동향, 해외 기관(예를 들면, 미국의 'OSAC', 'ONCIX', 한국의 '영업비밀 보호 센터' 등)의 활동 등에 관해 조사/연구를 실시함.(단기)(경제산업성)

#####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관민(官民)포럼 등의 준비)

- 일본의 기술/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OSAC', 'ONCIX' 등 해외각국의 활동 등을 참고하면서, 관민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산업계와 정부가 일체가 되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정보 공유/검토 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개시함.(단기)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기타)

##### (기업/대학 등의 영업비밀 관리 강화 지원)

- 인재를 통한 기술 유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등에 입각해, 영업비밀 관리에 관해 기본적 대응을 취하고 있지 않는 기업(특히, 중소기업)/대학 등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존의 지침/가이드라인(영업비밀 관리

지침 등) 내용의 철저한 주지를 실시함.(단기) (경제산업성)

- 인재를 통한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기본적 대응을 취하고 있지 않은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알기쉬운 사례 팜플렛 작성과 이를 이용한 주지(周知) 활동을 실시함.(단기)(경제산업성)

#### (4) 적절한 권리 행사 형태

##### [시책 사례]

(권리행사의 형태)

- 권리행사의 실태 조사와 일본 국내외 재판사례와 논의 등을 토대로, 적절한 권리 행사에 관해 계속해서 검토함.(단기) (경제산업성)
- 표준 필수특허에 관한 가치분금지청구권의 제한과 RAND 조건의 취급에 관한 국제 물마련에 적극적으로 관여함.(단기)(총무성, 경제산업성)

(표준 필수특허에 관한 적절한 권리 부여의 형태)

- 표준 필수특허와 관련 한층 적절한 권리 부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특허 심사에서 심사 자료로서의 취급이 명확하지 않은 국제표준화기관에의 제안문서 등의 취급에 관해 검토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 (5) 분쟁처리 기능의 강화

##### [시책 사례]

(분쟁처리 기능의 형태 검토)

- 지적재산 분쟁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재판소/특허청에 의한 해결, 재판외 분쟁 해결, 당사자간 화해 등의 지적재산 분쟁 처리 시스템 전체에 관해 타국 제도 등의 조사를 실시해 널리 발신함.(단기)(법무성/경제산업성)

(검토 결과의 글로벌 발신력 강화)

- 산업계로부터 지적재산 분야에서 아시아에서의 일본 사법 위상강화를 위한 요구가 있는 것에 입각해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 의한 소송 결과의 글로벌 발신 강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 (6) 국제표준화/인증에 대한 전략적 활동의 강화

### [시책 사례]

#### (특정 전략 분야의 국제표준화 전략 추진)

- 특정 전략 분야(시장 규모/성장성, 분야 확대, 일본의 우위성, 국제표준화의 의의 등의 사항에 입각해 선정)의 국제표준화 전략과 관련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는 동시에,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인 활동을 추진함.(단기/중기)(내각관방, 내각부,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 (해외각국과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 추진)

- 아시아지역의 성장성을 일본에 수용함으로써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표준화와 인증 분야에서 아시아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함.(단기/중기)(총무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 미국 등 선진국과의 관계에서도 에너지 환경 기술 등의 분야에서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 연구 등을 통한 국제 표준 확립을 목표로 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 (국제 표준화 활동에 관한 재정 지원)

- 국제표준화기관 등에서 전략적인 표준화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을 포함한 관계자 활동 상황을 토대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단기/중기)(총무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 (첨단기술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술에 관한 인증 체제의 정비/강화)

-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로봇, LED 조명 등) 분야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술(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대형풍력 발전 등) 분야의 인증체제 정비/강화에 관해, 해외 인증기관과의 제휴/연계를 포함해, 바람직한 형태를 검토함. 이때에 특히 안전/안심을 비롯한 성능에 관한 분야에서 인증기관 자체도 인증대상이 되는 국제 표준 확립에 관여해, 해당 인증기관의 기술력을 활용한 보다 이노베이티브한 표준 마련을 지원해 가는 것도 검토함.(단기/중기)(총무성, 경



## 제산업성)

### (JIS의 고기능화)

- 지적재산 매니지먼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이노베이티브한 국제 표준의 전략적 확립으로 연결시킨다는 관점에서 일본 국내 규격인 일본공업규격(JIS)과 관련 규격 제안/책정 단계의 지원 제도 개혁을 통해 고기능화(보다 그레이드가 높은 평가 표준의 부가적 설정)를 도모함.(단기/중기) (경제산업성)

### (연구개발/기준 인증 통합프로그램)

- 일본 기술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국제표준/안전규제의 책정과 관련된 인증 시스템의 설계/정비를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개시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실시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 (중소/벤처기업 지원)

- 일본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의욕적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이의 글로벌 전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인증에 관한 정보 제공/계발을 추진함.(단기/중기) (총무성, 경제산업성)

### (연구 직원에 대한 연수)

- 각 산업 분야에 관련된 정부 직원을 주요 대상으로 관계부처 등의 협력을 얻으면서, 국제 표준화를 포함 지적재산매니지먼트 전략에 관한 연수를 실시함.(단기/중기)(내각관방)

### (지적재산매니지먼트 인재 육성)

-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전략, 지적재산, 국제표준화/인증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들 복수 영역에 걸쳐 지견(知見)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외와 일본 국내 선진업계의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지적재산매니지먼트전략(지적재산의 오픈/클로스를 토대로 한 전략)에 관한 사례 및 교훈에 대해 종합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경영진 및 지적재산, 국제표준화/인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보급/계발활동을 추진함. 또한, 필요에 따라 세미나 등을 개최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권리 행사의 형태)

-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가치분금지청구권의 제한과 RAND 조건의 취급에 관한 적절한 국제 룰의 확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함.(단기) (총무성, 경제산업성)[전계]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적절한 권리부여 형태)

- 표준필수특허에 관해 보다 적절한 권리부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특허 심사에서 심사 자료로써의 취급이 명확하지 않은 국제표준화기관에 제출하는 제안문서 등의 취급에 관해서 검토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전계]

**(7) 산학관 연계기능 강화**

**[시책 사례]**

(산학연계기능 평가의 촉진)

- 산학관 연계 활동의 평가 지표를 대학/TLO 등의 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각 기관이 스스로 PDCA를 회람함으로써 지(知)의 발굴과 실용화 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정부의 정책 톨로써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 이의 대책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TLO 등의 평가 결과 공표를 촉구하는 한편, 산학 연계활동의 평가 등에 관한 모델 거점을 만들어, 각 기관의 평가를 주시하면서, 한층 평가지표의 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지적재산의 유통 촉진을 지원하는 전문 인재의 확보)

- 일본 국내 기업과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에 개방 가능한 지적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의 선별 능력과 지적재산의 가치 판단, 글로벌 전개도 포함한 지적재산의 유통 촉진을 지원하는 전문 인재의 확보를 검토함.(단기)(경제산업성)

(대학 등과 중소/벤처 기업의 연계 촉진)

- 대학 등과 중소/벤처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대학 등의 지(知)의 중소/벤처기업에의 기술 이전 등, 대학 등과 중소/벤처기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 3. 글로벌 지적재산 인재의 육성/확보

#### (1)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지적재산 인재 육성

##### [시책 사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지적재산 인재 등을 육성하기 위한 장(場) 정비)

-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지적재산 인재와, 경영진을 포함한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각국의 다양한 지적재산 정보,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적 지식, 사업전략과 연계한 지적재산 전략에 관한 지견과 노하우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함. 일본에서도 민간 섹터의 협력을 받으면서 정부 기관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지적재산 인재 등을 육성하기 위한 장(場)의 정비를 위해 미국특허상표청(USPTO) 등의 활동에 관해서 조사를 개시함.(단기)(경제산업성)

(사업전략적인 지적재산 매니지먼트의 연구/분석 결과의 이용 촉진)

- 지적재산 인재 육성에 관한 협의회에 대해 지적재산 매니지먼트를 연구/분석하는 장(場)에서 연구/분석된 정보를 널리 공유하고 각종 연수 내용에 반영하도록 촉진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지적재산 매니지먼트를 연구/분석하는 장(場)과의 연계 강화)

- 지적재산 인재 육성에 관한 협의회에 대해 지적재산 매니지먼트를 연구/분석하는 장(場)에서 연구/분석된 정보를 토대로 실시된 연수 결과를 종합하는 동시에, 교육적 입장에서 지적재산 매니지먼트의 연구/분석하는 장(場)에 대해 이후 연구/분석해야 할 테마 등 정보의 피드백을 촉진하고, 지적재산 매니지먼트를 연구/분석하는 장(場)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며, 계속해서 일본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사업 전략에 이바지할만한 질 높은 지적재산 매니지먼트의 연구/분석을 실시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아시아 신흥국에서 일본의 심사 시스템 전개를 위한 인재 육성)

- 영어에 강하고 또한 일본의 심사 기준을 비롯한 심사 시스템을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아시아 신흥국의 지적재산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인재 육성)

- 아시아 신흥국의 지적재산 정보를 수집/분석해, 제도/운영/분류의 조화 추진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신흥국의 지적재산법을 비롯한 경제법과 지적재산제도의 운영에 밝은 인재를 육성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아시아 신흥국의 지적재산 시스템 정비를 지원하는 인재의 육성/확보)

- 아시아 신흥국에 적절한 지적재산 시스템의 정비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신흥국의 지적재산제도와 기계화 상황에 밝은 인재를 육성/확보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 지원 강화)

- 지적재산종합지원 창구에서 글로벌 전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등의 상담 기능에 관해서도 관계 기관과 연계한 지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강화해 감과 동시에, 각 부처에서 세미나 개최 등 보급 계발 활동을 강화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중소/벤처기업과 금융기관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자의 지적재산 마인드 향상을 위한 활동)

- 중소기업경영진, 금융기관, 세리사/중소기업진단사에 대한 사업 시점의 지적재산 계발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제도 개요와 실무상 필요한 각종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니즈에 입각해 충실화를 도모하면서, 실시함.(단기)(경제산업성)

(변리사제도의 재검토)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능력 확보와 글로벌 대응 능력 확보 관점에서 변리사의 자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변리사 시험 제도와 연수 제도를 포함한 변리사 제도의 재검토를 실시함.(단기) (경제산업성)

(지적재산의 유통 촉진을 지원하는 전문 인재 확보)

- 일본 국내의 기업과 대학 등이 보유하는 타사에 개방 가능한 지적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의 선별 능력과 지적재산의 가



치 판단, 글로벌 전개도 포함한 지적재산의 유통촉진을 지원하는 전문 인재의 확보를 검토함.(단기)(경제산업성)[전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제표준화/인증에 관한 계발)

- 일본 산업을 떠받치는 의욕적인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인증에 관한 정보 제공/계발을 추진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전계]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인재 육성)

-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전략, 지적재산, 국제표준화/인증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들 복수 영역에 걸쳐 지견(知見)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외와 일본 국내 선진업계의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지적재산매니지먼트전략(지적재산의 오픈/클로스를 토대로한 전략)에 관한 사례 및 교훈에 대해 종합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경영진 및 지적재산, 국제표준화/인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보급/계발활동을 추진함. 또한, 필요에 따라 세미나 등을 개최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전계]

(대학 등에서 지적재산 교육 추진)

- 대학 등의 이과계학부와 법학부, 예술학부와 경영학부 등 장래 지적재산 전문 인재와 지적재산 창출 인재/매니지먼트 인재를 육성하는 학부/학과 등에서, 예를 들면 지적재산에 관련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대학에서의 활동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지적재산에 관한 과목 개설 등 자율적인 활동 전개를 촉진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 제2,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강화 지원

### ○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재산 활동 지원

#### (1)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개 지원 체제 정비

[시책사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개 지원 추진)

- 중소기업/벤처를 비롯한 기업의 해외사업 전개 종합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특허청,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 JETRO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의 지적재산 권리화에서 활용까지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환경을 강화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전계]

- 시장으로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에 관해서는 각국의 지적재산제도 운영 개선 촉진, 모방품 피해의 실태 파악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현지에서의 지적재산 법집행 지원과 일본 브랜드 추진 관련 지원을 한층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 변리사나 기업 OB 등의 활용도 염두에 둔 대사관과 JETRO 등의 현지지원 체제와 활동 강화를 도모함.(단기/중기) (경제산업성, 외무성) [전계]
- 해외 전개에 필요한 지적재산 관련 정보를 집적한 데이터뱅크의 내용을 신흥국의 지적재산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확충함.(단기)(경제산업성)
- 중국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비일본어 특허문헌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외국어 특허 문헌을 일본어로 검색 가능한 환경의 정비(번역, 분류 등)을 촉진함. 또한, 그 성과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새로운 인터넷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더 유저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폭 넓게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전계]

(중소/벤처기업의 외국 출원 비용에 관한 지원 확대)

- 중소/벤처기업에게 있어서 부담이 큰 외국출원비용에 관한 지원을 확대함.(단기)(경제산업성)

(해외 지적재산 프로듀서 사업 체제 강화)

- 앞으로 글로벌 전개가 더욱 활성화되고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전개할 때에 지적재산면의 지원이 중요성을 더할 것을 고려해 해외 지적재산 프로듀서사업 체제 강화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단기/중기)(경제산업성)

(해외 현지 서포터 체제 강화)

- 해외 모방품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모방품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이 실시하는 현지 침해 조사 지원 사업의 보다 많은 활용을 촉진시키는 대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필요에 걸맞은 지원 확충을 도모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전계]

##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 재검토

### [시책사례]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의 재검토)

-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 및 대학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더 나아가 이노베이션 촉진에 이바지하는 효과적인 감면제도로 하기 위한 재검토.(단기/중기)(경제산업성)

## (3) 지적재산 시장의 활성화(미이용 특허 등의 효과적 활용)

### [시책사례]

(지적재산의 유통 촉진을 지원하는 전문 인재 확보)

- 일본 국내 기업과 대학 등이 보유하는 타사에 개방 가능한 지적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의 선별 능력과 지적재산의 가치 판단, 글로벌 전개도 포함한 지적재산의 유통촉진을 지원하는 전문 인재의 확보를 검토함.(단기)(경제산업성)[전계]

(개방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다언어화)

- 해외 비즈니스 거점의 유치와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관점에서 개방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다언어화 필요성에 관해서 검토함.(단기)(경제산업성)

## (4) 지적재산 종합 지원 창구 기능 강화

### [시책사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 지원 체제 충실)

-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영 과제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지적재산 종합지원 창구와 금융기관, 상공회/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대학기술이전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단기)(경제산업성)
- 지적재산종합지원창구에서 변리사, 변호사, 기업 OB를 포함한 전문가, 해외지적재산 프로듀서를 더 많이 활용해 아시아를 포함한 해외지적재

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함.(단기)(경제산업성)

- 지적재산종합지원창구에서 글로벌전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등의 상담 기능에 관해서도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강화해 가는 동시에 각 담당부처에서 세미나 개최 등 보급 계발 활동을 강화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전계]

## (5) 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지적재산활동 활성화

### [시책사례]

(심사관의 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지적재산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 강화)

- 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지적재산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구체적인 니즈 등에 입각해 지역 기업 및 대학이 심사관 등으로부터 권리 취득, 심사 수속 또는 권리 활용에 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기 수월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책정함.(단기)(경제산업성)

(중소/벤처기업과 금융기관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자의 지적재산 마인드 향상을 위한 활동)

- 중소기업경영진, 금융기관, 세리사/중소기업진단사에 대한 사업 시점의 지적재산 계발을 위해 지적재산권 제도의 개요와 실무상 필요한 모든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니즈에 입각해 충실화를 도모하면서 실시함.(단기)(경제산업성)[전계]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지적재산지원 네트워크 강화 추진)

- 각 지역의 경제산업국을 중핵으로 한 지역지적재산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각 지역의 상황에 걸맞은 지적재산 지원 형태에 관해 검토하고, 실시 가능한 활동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감.(단기/중기)(경제산업성)

(지적재산 인재의 컨설팅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

-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 매니지먼트를 경영적 관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연수 등을 통해서 변리



사와 중소기업 진단사와의 연계를 강화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변리사 제도의 재검토)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능력 확보와 글로벌 대응 능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변리사의 자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와 연수 제도를 포함해 변리사 제도의 재검토를 실행함.(단기)(경제산업성)[전계]

## ■ II-2 콘텐츠 강화 관련 시책

### ○ [정세 인식]

- 2003년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설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설립 당시는 상정되지 않았던 고속인터넷망의 세계적 보급이 가져온 기술 혁신과 경제협력협정(EPA) 등 정부간 활동 등을 통한 국경이라는 경제적 장벽의 완화로 국경을 초월해 모든 것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보더레스(Borderless) 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어 심리스(Seamless)하게 세계가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기존의 콘텐츠산업이 전제로 하고 있던 산업생태계가 현저하게 변화해 콘텐츠유통에 있어 콘텐츠 서비스 디바이스의 관계는 방송 프로그램, 방송국, 텔레비전수상기 등의 분야별 수직통합적 모델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로 제공되는 분야 횡단적 수평융합적인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음
- 새로운 모델에서 콘텐츠 자체는 크리에이터가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저가 작성하는 것과 공공 섹터가 보유하는 공공 데이터, 교육 콘텐츠, 빅데이터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며 다양화/다층화하고 있음
- 동시에 최근 클라우드의 발달과 더불어 3차원 프린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제작(Digital Fabrication) 등 최신 기술의 보급으로, 모노츠구리(제품 생산)와 콘텐츠가 한층 분야횡단적으로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더욱 수월하게 콘텐츠가 세계로 전달되는 한편, 일본의 독자적 매력을 가진 일본 브랜드가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어 이의 해외 진출과 인바운드(inbound), 이에 따른 일본 산업과 문화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 더욱이 지적재산을 핵으로 한 정보 활용을 통해 광범위한 재(財)와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조합시켜 최적화를 추진하는 '스마트 파워'가 각 산업의 형태를 크게 변화시켜가고 있음.
- 이처럼 기존의 사고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창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음. 지금까지 10년 동안 일어난 것이 앞으로 2, 3년 사이에 일어나고 지금까지 50년이 걸려서 일어난 것이 이후 10년 동안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콘텐츠 강화를 위한 종합전략에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이노베이션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변화해가는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의 지적재산 매니지먼트가 요구되고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차세대산업 생태계의 변용과 다양화를 내다보고 한발 앞서 대응해나가는 것으로 변하는 동시에 젊은 층의 발상을 실현화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나라 전체가 의식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가기 위해 '콘텐츠 창조 입국'을 선언함으로써 일본이 하나가 되어 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향해 감.
- 이의 구체화에 있어서는 콘텐츠 글로벌 전개의 인프라인 디지털/네트워크사회에 대응한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경제와 문화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를 축으로 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 일체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일체가 된 대응이 불가결하며 과학기술정책과 문화정책, IT정책과의 융합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함.

### ○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본격화된 지 20년이 경과한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 10년간은 콘텐츠가 주목을 받으며, 저작권법을 개정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에 대응하는 등 각 분야에서 대책이 추진되어왔음.
- 하지만, 콘텐츠의 이용과 정보 생산은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한편, 일본 콘텐츠산업의 시장 규모는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 경향에 있음.
-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표시디바이스에 의한 멀티스크린, 클라우드 네트

워크, 소셜서비스 등 미디어의 쇄신이 일어나는 동시에, 스마트 텔레비전과 같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음. 지금까지 패키지 콘텐츠가 시장의 중심에 있었지만, 유저 경험이 더욱 중시되고 소셜게임과 같은 다이내믹한 콘텐츠와 유저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user generated content)와 교육 콘텐츠의 급속한 확대 및 더 나아가 컴퓨터 능력 향상 등으로 대량/다양한 데이터 처리/이용이 가능하게 된 공공 섹터가 보유하는 공공데이터, 빅데이터에 포함된 콘텐츠 등 종전의 문예와 엔터테인먼트에 머물지 않는 콘텐츠의 보급과 변용이 나타나는 동시에 콘텐츠가 활용되는 장면도 교육/의료/전자상거래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사회는 한층 더 이노베이션이 요구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 그런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의 진전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유통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플랫폼 구축의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일본은 타국에 뒤쳐져 있는 상태로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플랫폼을 시야에 둔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비율이 높은 콘텐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최근 급격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해 보다 많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통되어 왔던 콘텐츠가 빅데이터의 추진으로 대량의 정보가 산업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기계와 기계 사이의 콘텐츠 유통의 무게가 높아져가고 있어 콘텐츠 정책이 산업경쟁력과 직결됨과 동시에, 관련 산업 전체를 내다본 시점이 불가결하게 됨.
- 이런 상황 속에서 권리 보호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세계적인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급속한 진전 및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문화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대립 구조를 넘어서고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촉진하는 탄력적인 제도 설계로 콘텐츠의 활용과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결하게 됨.
- 또한, '콘텐츠'는 저작권, '모노츠구리(제품 생산)'는 산업재산권이라는

종전의 이분법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의 한계를 넘어 권리의 집중화, 처리의 원활화로 콘텐츠의 산업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원천으로써 오픈 소스에서의 저작권 이용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새로운 산업과 문화 발전을 위한 환경 정비를 도모하는 동시에, 콘텐츠를 핵으로 한 해외시장의 획득과 비즈니스/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실현하고, 경제활성화와 일본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으로써 콘텐츠 정책의 우선권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 향후 새로운 산업과 문화의 발전 기반이 되는 지적 인프라 기반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각분야별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화와 이용 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교육 정보화도 추진하면서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차세대 육성을 도모함

### ○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

- 쿨재팬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것처럼 일본의 독자적인 개성 풍부한 문화는 세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음. 이러한 공감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에 그치지 않고, 패션, 식, 전통문화/공예, 관광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더 나아가 공업 디자인, 서비스 수준, 가족 경영, 생활양식 등의 경제/문화 전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런 소프트파워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콘텐츠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문화의 힘과 모노츠구리(제품 생산)의 힘을 합친 종합력을 활용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을 흡수하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미션임.
- 방법으로서는 미디어와 이벤트에서의 정보 발신을 강화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활동이 가장 시급함.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콘텐츠를 해외에서도 판매한다는 생각에서 해외전개를 한층 더 중시하고, 목표 대상 국가와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거기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로 해야 할 것인가, 일본발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면서 해외전개를 촉진하기 위해 응당 해야 할 제도적 대응은 무엇인가,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한 발신과 패키지화된 전개를 위한 분야 횡단적인 연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문화 외교를 포함한 전략적 해외전개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함. 이 때, 콘텐츠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이 갖는 매력적인 콘텐츠의 해외전개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세계에 통용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창조 거점의 정비 지원이 중요함.

- 또한, 해외로부터 일본에 사람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일본에만 있는 스토리와 문화의 본고장을 형성해서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인바운드 대응이 두 번째임. 인바운드를 통해 일본팬을 보다 많이 늘리는 것이 일본 브랜드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하고 이것이 추가적인 인바운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음.
- 일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육성하는 관점에서 국내외의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콘텐츠 창조를 위한 인재육성을 전개하는 활동이 세 번째임
- 중요한 것은 일본 브랜드의 힘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합력임. 콘텐츠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문화의 힘과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모노츠구리(제품 생산)의 힘임. 옛날부터 키워온 문화력과 기술력 양자를 결합시켜, 서로 끌어올리는 종합력이 새로운 일본의 강점이 됨.
- 또 다른 하나는 국민 모두의 힘임. 일본의 팝컬처는 일부의 천재라기 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로 키워온 것으로 이른바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낳은 새로운 힘임. 네트워크로 모두가 연결되는 시대는 커다란 기회임
- 그러나 문제는 그 힘을 일본인이 그다지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미국 기업의 국제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일본인만이 일본을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음.
- 일본인이 자신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해외에 자신을 갖고 일본 브랜드를 전개해 가는 것이 중요함.



### ■ 제3, 디지털 네트워크사회에 대응한 환경정비

#### ○ (1)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

##### [시책사례]

##### (인터넷에서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 촉진)

- 클라우드네트워크, 소셜서비스 등 미디어의 발전, 유저가 작성하는 UCC의 확대 등을 고려해, 인터넷을 활용한 유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콘텐츠의 창조와 자유로운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저작물사용 허가표시(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등 퍼블릭 라이선스(Public License)의 보급 등에 관한 검토를 실시해, 비영리목적 이용뿐만 아니라 산업 이용도 포함한 콘텐츠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 (공공데이터의 2차이용 촉진)

-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에서 공공데이터의 광범위한 2차이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공적 기관이 보유하는 공공 데이터에 관해 비즈니스와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이용 촉진을 위한 통일적인 틀 등의 기반 정비에 관한 검토를 추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단기)(내각관방)

#### ○ (2) 콘텐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 [시책사례]

##### (새로운 산업의 창출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구축)

-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물의 적절한 보호를 조화시켜, 새로운 산업과 문화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창출과 확대를 촉진하는 전체적인 법적 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 권리제한규정의 재검토와 원활한 라이선싱 체제의 구축 등의 제도에 관해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단기)(문부과학성)

##### (크리에이터의 적절한 대가 환원을 위한 제도 구축)

- 크리에이터에게 적절한 대가가 환원되도록,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에

관해 계속해서 제도의 재검토와 동시에, 필요에 따라 해당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발본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콘텐츠의 재생산으로 연결되는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단기/중기)(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새로운 산업의 창출, 확대를 위한 콘텐츠 권리 처리의 원활화)

- 방송 프로그램 등의 2차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복잡한 권리처리 절차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창구기관을 정비함. 구체적으로는 실연가에 관해서는 사용허락신청 접수부터 사용료의 징수 분배까지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레코드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원의 권리 처리에 관련된 창구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권리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함.(단기/중기)(총무성, 문부과학성)
- 권리소재가 불분명한 저작물을 포함해 과거의 방대한 콘텐츠자산의 권리 처리 원활화를 통해 이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재정(裁定)제도를 재검토하고, 권리자 불명의 입증 부담 경감과 표준처리기간의 단축 등으로 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를 추진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등에 대응해 방송 콘텐츠의 인터넷 전송 관련 권리처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점에서의 2차이용 허락을 포함한 계약 형태와 방송 후 일정 기간 내의 인터넷 배 전송/웹캐스팅 관련 권리처리 형태 등, 계약 및 관련법제도상의 과제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단기/중기)(총무성, 문부과학성)
- 산업재산 차원에서 제작되는 콘텐츠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저작물 등의 권리 귀속을 일원화한 라이선시를 보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2차이용의 일원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스템도 포함해 검토를 추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 콘텐츠의 글로벌한 유통과 적정한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에 ID를 부여하고 권리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집약해서 클라우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참조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와 콘텐츠

이용에 관련되는 대가의 징수/분배 시스템의 정비를 촉진함.(단기/중기)(총무성, 문부과학성)

- 지적재산종합지원창구에서 글로벌 전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등의 상담기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강화해가는 동시에 각 부처에서 세미나의 개최 등 보급개발활동을 강화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 (지적재산 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통상관련협정의 활용)

- 자유무역협정(FTA)/경제협력협정(EPA)과 투자 협정 등 양국간, 다국간 협정을 통해 글로벌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지적재산 분야의 국제적인 문제의 해결/개선을 도모함. 구체적으로는 일본 산업계 등의 요청을 토대로 하면서, 협상 상대국의 지적재산제도 정비와 실효적인 법 집행의 확보 등을 촉진하고, 또한, TRIPS협정 등의 규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지적재산 보호가 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함.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해서는 산업계를 비롯한 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하면서 국익에 걸맞은 최선의 결과를 추구함.(단기/중기)(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 (전자서적의 본격적인 보급 촉진)

- 해외 거대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한 교섭력 향상과 모방품/해적판 대책 등을 위해, 전자서적에 대응한 출판권 정비 등 출판자의 권리 부여와, 서적 출판/전자 전송에 관련된 계약에 관한 과제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단기)(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전자서적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의 작품과 전문서적을 포함한 다종다양한 전자서적 콘텐츠 수의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저변확대 등 민간의 대응을 지원함.(단기)(경제산업성)
- 오픈형 전자출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서적 교환 포맷의 표준화와 일본 국내외 보급 촉진을 도모함. 또한, 전자 출판의 플랫폼이 되는 차세대 브라우저에 관해 세로쓰기 문화의 계승과 세계로 일본문화 발신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어에 대응한 세로쓰기 레이아웃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가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함.(단기/중기)(총무성, 경제산업성)

#### (플랫폼 형성의 촉진)

- 출판, 음악,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지원을 통해서 콘텐츠가 플랫폼을 리드하는 에코시스템 실현의 촉진을 지원함.(단기/중기)(총무성, 경제산업성)
- 크리에이터의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의 결정 사항의 투명화와 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플랫폼에 관해 대외적으로 일본기업이 불리하게 되는 자율 규제와 계약관행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업계의 자율 규제와 관행 등의 재검토 활동을 지원함.(단기)(경제산업성)

(빅데이터 비즈니스의 진흥)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사업 분야에서 대량으로 생성되는 유저 정보, 영상/음성, 센서 정보 등 가치 있는 지적재산을 만들어내는 빅데이터를 경영 자원으로 보고 이것을 이·활용(利·活用)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보호 등과 이·활용 밸런스에 배려한 퍼스널 데이터의 취급에 관련된 룰 등의 사업 환경 정비와 리스크 경감을 도모하면서 데이터를 이·활용하는 사회기반 및 기술 등의 데이터 수집/축적/분석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조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등을 전개함.(단기/중기)(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3)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촉진의 기반 정비

[시책사례]

(문화자산의 디지털 아카이브화 촉진)

- 새로운 산업과 문화 창조 기반이 되는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서적, 영화, 방송 프로그램, 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디자인, 사진, 문화재 등 문화자산 및 이들 관련 자료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각 아카이브 간의 연계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정비 및 해외 발신강화에 관해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단기/중기)(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교육의 정보화 촉진)**

- 모든 초등/중학교에서 아동 생도 1인 1대의 정보단말을 이용한 디지털 교과서/교재 활용을 비롯한 교육 정보화의 본격적 전개가 시급하며, 실증연구 등의 상황을 토대로 하면서, 디지털 교과서/교재의 자리매김 및 이들과 관련된 교과서 검정제도 등과 더불어 저작권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총무성)

**■ 제4,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 (1) 일본 전통과 문화 등 매력적인 콘텐츠/제품 등의 발굴/창조****[시책사례]****(대상국가/지역에서 판매하기 위한 콘텐츠/제품의 제작 관련 지원)**

- 타겟이 되는 국가와 지역에서 판매하기 위해 일본 고유의 문화력과 모노즈구리(제품 생산) 기술력의 융합 및 국민의 폭 넓은 발신력을 활용하면서, 관민일체가 되고 동시에 사업자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매력적인 콘텐츠와 제품 제작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구함.(단기)(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 해외시장에서 수용될 만한 콘텐츠의 제작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대외발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동제작 등의 국제적인 창조발신행동을 지원함으로써 콘텐츠의 질 향상과 노하우 축적을 도모함.(단기)(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세계적인 콘텐츠 공급국으로써의 인재/개발거점 정비)**

- 일본 콘텐츠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창조력을 충분히 비즈니스로 연결시켜나가기 위해 각 분야의 콘텐츠 집적 및 일본 전통/문화와의 융합과 이의 발신을 통해 세계에 통용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인재육성과 개발 창조거점의 정비를 지원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지역 브랜드 확립)**

- 지역의 뛰어난 상품 및 기술, 문화자산(문화재, 애니메이션, 패션, 식(食) 등을 포함) 등에 대해 브랜드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등과의 연계 등을 통해 이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에 통용되는 브랜드로써 확



립하며 해외전개와 관광 진흥,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이 하나가 되는 활동을 실시함.(단기)(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 지역에 뿌리를 내린 문화예술의 매력을 일본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또한, 국제교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개시 예정인 '동아시아문화도시'의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의 힘으로 지역경제살리기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문화예술창조도시'의 정보 집약/발신을 담당하는 플랫폼인 '창조도시네트워크 일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브랜드의 발신력을 강화함.(단기)(문부과학성)
- 일본의 고품질 농림수산물/식품의 고부가가치화/브랜드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리적 표시(GI)의 보호제도를 도입해 수출 촉진을 도모함.(단기/중기)(농림수산성)
- 향토음식 등 지역브랜드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등이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가 되도록 제도의 확충을 도모함.(단기)(경제산업성)

(일본의 고도한 기술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촉진)

- 고도한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해, 3차원 영상 기술, 디지털 제도(Digital Fabrication, 3차원 프린터 등으로 디지털 데이터에 기초해 조형하는 것) 등 콘텐츠제작의 고도화/효율화에 유효한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콘텐츠제작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하기위한 활동을 지원함.(단기)(총무성, 경제산업성)

## ○ (2) 일본 브랜드의 글로벌한 발신

[시책사례]

(각국 방송 시간대의 확보와 각지에서의 일본 이벤트 실시)

- 일본의 콘텐츠 및 식(食)과 산업, 문화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및 해외현지방송국/전송사업자와의 연계 등으로 앞으로의 비즈니스전개를 염두에 둔 각 지역의 문화 및 니즈에 맞는 콘텐츠의 현지화, 판매, 해외 채널과 방송 시간대의 확보를 촉진해, 일본 산업과 문화가 일체된 매력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활동을 지원

함.(단기)(외무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

- 일본 브랜드에 관한 이벤트 등에서 발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일본 콘텐츠와 상품의 팬을 확대하면서 팬과 연계하고 외국인에게 일본 브랜드의 매력을 전달하는 활동을 일본 국내외에서 중점적, 계속적으로 실시함. 이때에는 각 이벤트 간의 연계, 인터넷의 활용, 외국인 흡수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발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량적인 효과 측정 등을 실시하고, 이의 평가를 실시하면서 한층 발신력 강화를 도모함.
- (단기)(내각관방,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 국토교통성)
- 일본 콘텐츠의 해외전개 강화 추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크리에이터/바이어 초빙, 젊은 크리에이터의 발굴 강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발신력 강화 등을 위해 도쿄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일본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영화제와 국제영상전본시 등의 개최를 지원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국제회의 등의 활용을 통해 일본의 매력 발신 강화)

- 정상외교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 글로벌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 브랜드가 갖는 강점과 매력,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의미의 일본어)' 등 일본적 가치의 대외 어필을 강화하고, 아울러 일본 식재료(食材料)와 일본산 주류 등의 보급 촉진을 도모함.(단기)(내각관방,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 ○ (3) 전략적 해외전개의 추진

[시책사례]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 공급)

- 매력적인 일본제품/서비스의 해외수요 개척을 국민일체가 되어 추진하기 위해 산업화를 향한 리스크머니의 공급과 전문가 파견, 조언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설치해, 각 기관과도 연계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해외전개를 실시하는 기업 등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

합.(단기)(경제산업성)

(각국의 기초적 조사 실시 등 해외전개 지원의 체제 정비)

-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신흥국에 대해 각국의 지적재산제도 운용의 개선촉구, 모방품 피해 실태 파악에 노력함과 동시에 현지에서의 지적재산 범집행 지원 및 일본 브랜드 추진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및 기업 OB 등의 활용도 시야에 두고 대사관 및 JETRO 등 해외지원 체제와 활동 강화를 도모함.(단기/중기)(경제산업성, 외무성)

(콘텐츠규제의 철폐/완화 활동 강화)

- 양국간/다국간 관민에 의한 협의/교섭에서 영화/방송프로그램/만화/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수입규제를 문화/산업면에서의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판단하고, 협의/교섭 전체 속에서 콘텐츠 규제의 완화/철폐를 우선도가 높은 과제로 상정해, 고위급에서의 촉구를 강력히 전개해 감.(단기)(외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 (4) 일본국내외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추진

[시책사례]

(해외로부터 로케이션 촬영 유치 촉진)

- 해외로부터 로케이션 촬영 유치를 위해, 콘텐츠 특구를 통해 얻은 성과와 관련 타지역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단기)(내각관방,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경찰청)
-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발신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필름커미션(Film Commission) 등과의 연계와 로케이션 지역 정보의 집약/제공 등을 통해 지역의 로케이션 촬영 수용체제 정비를 추진함.(단기)(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개인 여행의 촉진/비즈니스 관광 활동 강화)

-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여행의 촉진을 위한 정보 발신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후 성장시장도 시야에 넣고 각 시장에 대응한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실시함.(단기)(내각관방, 국토교통

성, 외무성)

- MICE 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 구축, 수용 환경 정비 등을 통해서 MICE 유치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단기)(국토교통성)
- ※MICE란 Meeting(회의, 연수, 세미나), Incentive tour(초대여행등), Convention(대회, 학회, 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임.
- 지역자원 등 일본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의 해외진출지원을 통해 일본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등, 일본의 콘텐츠, 패션, 식(食) 등의 발신과 비지트 재팬(VISIT JAPAN)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방일 외국인 여행자와 MICE의 효과적인 유치를 도모함.(단기)(국토교통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농림수산업성, 문부과학성)

## ○ (5) 모방품/해적판 대책 추진

### [시책사례]

(정규품의 유통 확대와 일체가 된 침해 대책 추진)

-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민일체가 된 대응 및 각국과의 연계를 통해 침해발생국에서의 모방품/해적판의 단속과 인터넷상에서의 삭제 등 범집행 강화를 한층 도모하는 동시에, 침해대책과 세트가 된 합법 콘텐츠의 유통 촉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함.(단기)(외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농림수산업성)
- 콘텐츠침해 대책 강화에 기여하는 저작권 보호 및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보급계발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관민의 지역봉사(Outreach)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단기)(문부과학성)
- 침해발생국에서 기업 등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침해 발생국의 지적재산제도 조사 및 정보 제공, 침해 콘텐츠의 유통 방지를 위한 보급계발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단기)(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외무성)

(국내 단속 강화)

- 모방품/해적판의 초기 봉쇄 및 일본 국내의 불법 유통품의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세관/경찰에 의한 집중 단속과 소규모화/분산화 되는 지적재산침해 물품의 수입 금지를 위한 권리자와의 연대강

화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짝퉁 구입을 용인하는 의견이 여전히 뿌리 깊은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의식 계발을 추진함.(단기)(재무성, 경찰청,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ACTA 추진)

- ACTA(위조품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와 관련, 기존의 서명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에 대해 고위급을 포함한 촉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서, 협정의 조기 발효를 지향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각국에 대해 협정에 대한 이해/참가를 촉구함.(단기)(외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총무성, 법무성, 재무성)

○ (6) 콘텐츠 인재 육성

[시책사례]

(크리에이터의 저변 확대)

- 크리에이터의 학교 방문, 순회공연과 워크숍, 체험 교실의 개최를 통해 어릴 때부터 미디어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예술을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발상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 장래의 크리에이터 육성을 도모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 학교교육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다양한 학습/체험 기회의 제공과 교직원의 의식/지도력 향상 등을 통해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캐리어 형성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과 더불어, 이들의 육성을 통해서 가치관, 특히 근로관/직업관을 스스로 형성/확립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캐리어 교육을 추진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젊은 크리에이터 육성)

- 젊은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모노츠구리(제품 생산)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창조/발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표창제도와 작품제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함.(단기)(문부과학성)
- 원격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활용과 교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효과적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지원함.(단기)(문부과학성)



성, 총무성)

(글로벌 인재 육성)

- 유학/해외연수 및 해외 크리에이터/프로듀서와의 교류를 통해 해외에서의 콘텐츠 제작 기능/지식을 습득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인 감각을 몸에 익히는 기회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크리에이터/프로듀서를 육성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전수(專修)학교, 대학 및 업계단체에 의한 산학연계 컨소시엄을 활용해,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크리에이터/프로듀서의 육성 강화를 도모함.(단기/중기)(문부과학성)

(콘텐츠제작 현장 환경 개선/거래의 적정화)

- 콘텐츠제작현장에 적정하게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이익이 환원되는 환경을 정비하고, 거래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독점금지법 및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을 엄정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크리에이터의 취로 환경 개선 향상의 중요성도 고려해, 거래적정화를 위해 크리에이터와 관련되는 제작거래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보급계발을 추진함.(단기/중기)(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경제산업성)